

이원재 1차관,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 개최 - 채용강요, 금품요구 등 현장 애로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(목) 오후 4시부터 건설업계 및 레미콘 업체를 만나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노조의 채용강요, 기계사용 강요,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아울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하였다.
- 이 차관은 “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건설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, 건설노조는 레미콘 타설 중단을 위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”면서,
 - “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건설현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의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,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이어 이 차관은 “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※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(☎1577-8221) 또는 경찰청(112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2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